

배포 일시	2023. 2. 24.(금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 물류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근오 (044-201-3993)
		담당자	서기관 김병채 (044-201-3994) 주무관 윤동준 (044-201-4003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국토부-지자체, 화물차주 보호 위해 협력 강화 - 24일 화물운송 정상화 관련 시·도 간담회 개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「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」(2.6)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·도 화물운송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(時/所) '23.2.24(금) 14:30~16:00 / 정부세종청사 회의실
(참석) 국토부 물류정책관, 물류정책·산업과장 및 시·도 화물운송 담당 과장급

- 이번 간담회는 현재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“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*” 중 접수된 피해사례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'23.2.20.(월)~'23.3.17.(금), 4주간 / 물류신고센터 누리집 및 이메일 접수 중

-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,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.

- 아울러, 각 시·도 담당자들과 지입제 운영에 따른 화물차주의 주요 피해유형 및 각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공유하였다.

- 한편, 간담회에서는 화물운송 정상화 관련 지자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, 향후 관련법 개정에 대비한 지자체의 제도시행 준비사항 등도 논의되었다.

-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화물운송업 허가관리 업무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집행의 핵심인 만큼, 관련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자체에 당부하였다.
-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“지입제 피해사례를 근절하고, 화물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면서,
 - “화물운송 정상화를 통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가 정당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불공정한 관행은 과감하게 혁파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